

〈지난주 말씀&서론〉

▶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명을 찾아야 합니다. 그것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위로부터 받은 천명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는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.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. 우리는 작은 크든 소명을 가지고 삽니다.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업에 대해서 이게 내 소명이구나,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천명을 이루는 소명이구나. 천명을 찾고 나면 살아야 할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맞느냐 틀리냐 할 것이 없습니다.

▶우리는 소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습니다.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. 나의 천명이 뭘까? 날 찾은 것입니다. 소명이 뭘까? 내가 하는 일입니다. 이게 237 5000종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. 사명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천명, 소명, 사명을 찾고 살아야 합니다.

▶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. 그래서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. 그 결론을 통해 나오는 질문이 오직입니다. 그 오직이 발견되어야 유일성을 가지고 갑니다. 그러면 모든 현장이 재창조의 응답이 됩니다. 이게 여러분 속에 오직으로 각인, 뿌리, 체질되어야 합니다.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.

▶1부 예배 때 우리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. 감람산의 미션이 뭐냐? 세계복음화다.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 배경이 보좌입니다. 그 비밀이 막대 여성 이정표입니다.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 걱정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미래는 답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 축복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

▶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.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오늘 나 자신을 찾은 사람의 확인입니다.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. 그 말은 오늘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미래가 오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〈본론〉

1. 짐승 두 마리

▶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(계13:1)

본론에 짐승이 나옵니다.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외적인 방해꾼을 말합니다.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입니다. 앞으로 나오는 외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. 세계통치의 세력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나온다는 것입니다.

▶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짐승은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.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칭호를 스스로 붙여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. 내가 하나님 이야, 내가 신이야,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.

▶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(계13:2)

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짐승이 큰 용, 옛 뱀,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. 사탄의 권세를 이어받은 존재, 사탄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존재,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.

▶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(계13:3)

이 짐승 중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, 그러나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죽음을 해결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온 땅에 마치 그리스도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미래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해요?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 앞에 사람들은 경배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.

▶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(계13:4)

이 짐승이 목적이 뭡니까? 모든 사람의 경배와 예배를 빼앗아가기 위함입니다. 경배와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존재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.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.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.

▶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? 나같이 능력을 행사하고 신적 존재가 있느냐? 이걸 봐라,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. 여러분 눈을 열어야 합니다.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다 가짜입니다.

▶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(계13:5)

참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. 이게 마흔 두달, 3년 반입니다. 이게 하나님의 짐승에게 허락하신 기간입니다.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 존재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. 그 기간 동안만 이 짐승이 인간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2.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다

▶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(계13:6)

이 짐승이 성도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. 복음 가진 자들의 펑박과 환란이 어느 정도냐?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가서는 생존조차 어려워집니다. 이 짐승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활고와 경제의 어려움까지 온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나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.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▶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(계13:7)

이 짐승이 복음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야, 이 짐승이 복음을 이기네? 이 때가 옵니다. 용을 경배하고 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.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, 이 말은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이 존재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. 성도들이 지는 꽃이 됩니다.

▶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(계13:8)

창세기 이후로, 이 말은 아담 이후로,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이 존재를 경배하더라, 이 말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분, 권세, 배경입니다. 우리 후대가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과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,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미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. 다가올 미래를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. 아, 이런 때가 오는구나.

▶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(계13:9)

성도들이 전쟁에서 지는 일도 일어납니다. 그러나 괜찮은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괜찮다는 것입니다. 오늘 확신하셔야 합니다.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구나. 예배의 대상,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신적 존재

가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해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비밀이 없으면 모두가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.

▶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라(계 13:10)

잡혀가고 칼에 죽는 일이 있어도 성도는 믿음과 인내를 생명책에 두라는 것입니다. 어린 양의 생명책에 둔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. 잡혀가는 일,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, 그 일을 당해도 마땅히 성도들에게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.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, 왜요? 그 분이 이미 나를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장된, 도장에 인이 찍힌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.

▶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(계13:11)

아까는 바다인데, 지금은 땅에서 나오는 존재입니다. 아까는 외적인 짐승이었다면 이건 내적인 악의 영입니다. 먼저 짐승처럼, 이 짐승도 그 권세를 이어받았습니다.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.

▶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(계13:12)

이 내적 존재가 땅에서 나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.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다 동원해서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에게 경배와 예배를 빼앗아가도록 하는 목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경배와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.

3.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다

▶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(계13:13)

어떤 모습입니까? 엘리야적 모습입니다. 이 존재가 기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.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요. 그러니까 속지 않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,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습니다.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신적 존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.

▶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(계13:14)

땅에서 일어나는 존재는 미혹하는 존재입니다. 미혹의 영, 속임수, 거짓의 아비, 결국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. 이 미혹하는 존재가 결국 우상을 만듭니다.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.

▶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(계13:15)

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. 우상을 살려버려요.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. 봐라, 저 우상이 살아나고 말을 하지 않느냐? 여기에 안 속을 사람이 있겠어요?

▶그러면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. 죽이는 권리까지 행사하는 것입니다. 이게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속이고,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복음 없는 자들을 사로잡고 죽이는구나, 결국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.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보호를 받습니다.

▶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(계13:16)

죽이면서 뭘 하냐? 목적은 표를 받는 것입니다. 표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과 충성의 상징입니다. 우리 편이야! 이 말입니다. 죽이는 난리 속에서 표를 주고 있어요. 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?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너는 어느 편이냐, 이걸 확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이 표는 누가 받을까요?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받는 표입니다. 여러분의 소속을 확정하셔야 합니다.

▶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(계13:17)

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안된다는 거요.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. 표가 있어야만 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. 이게 삼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.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. 내 인내와 믿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환란의 시대에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던지,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지던지, 그 이름의 수를 가지던지,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▶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(계 13:18)

이게 우리가 아는 666입니다. 이건 숫자가 아니고 표입니다. 이 수는 완전수가 아닙니다.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고 난리를 쳐도 이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불완전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반그리스도 세력의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. 666의 수의 비밀을 가졌다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777입니다. 왜 우리에게 777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. 666을 대체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은

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777 밖에 없습니다. 7망대는 성부 하나님, 7여정은 성자 하나님, 7이정표는 성령 하나님,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777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. 666을 이길 수 있는 완전수입니다. 7은 훈님의 수고, 6은 사람의 수입니다. 그래서 6을 3번을 말했다는 것은 불완전의 극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.

▶오늘 답을 내셔야 합니다. 지금 말씀의 흐름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흐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.

〈결론〉

▶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. 앞으로 환란의 시기는 흑암이 발악하는 마지막 시간표입니다.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괜찮습니다. 아무리 신적존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.

▶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. 구원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. 최종 심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.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.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.

▶신분과 권리, 배경에 대한 확정입니다. 나의 신분, 권리, 배경에 대한 확정하는 것이 생명책의 비밀입니다.

대한예수교
장로회
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

주 소 :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-147호

담임목사 : 곽동호

전 화 : 010-5205-4079

E - mail : dhkwak0224@hanmail.net

인생복음상담 : 070-4406-4079